

관용(寬容)의 대로(大路)로 걸어갑시다!



총회장
신상범 목사

혼란과 혼돈의 2017년을 보냈습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계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한해였습니다. 전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의 수립, 연이은 북한적 군사적 도발, 종교인과세와 차별금지법 논란 등으로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포항의 지진으로 우리의 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특히 지난 연말에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하는 두 분의 동역자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뉴스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아마도 적폐(積弊)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 쌓인 썩어빠진 것들로 인해 많은 부분이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적폐들은 반드시 씻어내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성공하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여러 정권들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폐 청산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너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살리려는 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라고 했습니다. 정치는 정쟁(政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

어야 합니다. 우리교단도 지난 몇 년 동안 몇 지방회의 분쟁이 있었고 제111년 차교단 총회에서 결의로 분지방회가 이루어진 두 지방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성도는 모두 동분이고 친구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나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교단은 2011년 이후로 계속해서 교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총회와 지방회와 지교회와 직분자가 서로의 갈등에서 벗어나 퇴행을 극복하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모든 행동은 우리 주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과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서로 삼키고 나누는 사랑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본질은 아니며 이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정신에 따르면 분토(分土)만도 못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신니 새 마음 새 뜻으로 2018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의미와 보람찬 삶을 살아야겠습니다(히 9:27, 계 20:12). 이 추운 겨울에 눈을 돌려 주변에 어려운 우리의 동역자와 가족들을 살펴보고 도와야 합니다. 가까이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교회 가족들, 제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두 분의 목사님, 특히 그중에 박재용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로 슬하에 초등학생 어린 두 딸을 두고 가셨습니다. 또한 열악한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다 보니 오늘의 삶도 피폐하지만 최소한의 국민연금이나 교단 연금도 불입지 못해 은퇴 후에는 전혀 대책 없는 막막한 삶을 살아야 할 분들도 수 백 명에 달합니다. 이번 2018년 지방회에서는 모든 소모적인 분쟁은 뒤로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묵묵히 사역에 매진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며 어려움을 공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2018년 한 해 주님 앞에서 섬김과 나눔, 관용(寬容)의 삶이 시작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3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상범 목사